

학교 밖 · 13

자퇴를 정하기 전에

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. 닫히는 문이 어디인지만 적었습니다.
순서대로 보십시오 — 앞의 물음에서 갈리면 뒤는 안 보셔도 됩니다.

이야기가 나왔을 때 · 한 번

하나 — 어느 경우인지 먼저 가릅니다

- ☐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
- ☐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같았다
완전히 다른 일입니다. 섞으면 둘 다 상합니다
- ☐ 힘든 것이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았다
학교 상담 선생님 ·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☐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받았다
충동적인 결정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

둘 — 가운데 길이 있는지 봅니다

- ☐ 휴학이 되는지 학교에 물어봤다
고등학교에는 휴학이 있습니다. 학적이 남고 복학하면 됩니다
- ☐ 결석이 쌓이고 있지 않다
수업일수의 3분의 2를 못 채우면 유급 대상이 됩니다
- ☐ 꿈드림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)을 알아봤다
- ☐ 결정을 한 학기 미룰 수 있는지 생각해 봤다

셋 — 무엇이 닫히는지 셉니다

- ☐ 수시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막아 둔 줄이 552이다
2027 요강 6,482줄 중 989줄이 검정고시를 언급하고, 그중 제외가 552줄입니다
- ☐ 그중 학종이 286줄로 가장 많다
학종은 읽을 학생부가 없어 가장 좁습니다
- ☐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요강에서 확인했다
「국내 고등학교 이수」처럼 돌려서 막아 둔 문장도 찾아보십시오
- ☐ 지역인재를 쓸 계획이 아니었다
대개 해당 지역 고교 이수를 요구합니다
- ☐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

넷 — 돌아올 길을 정해 둡니다

- ☐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을 시·도 교육청 공고에서 봤다
제적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고, 시험은 한 해에 몇 차례뿐입니다